

할 일을 해 놓고 누려야 진짜 기쁨과 영광이다

본 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

『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

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

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

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가 주리라』

1.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<영광>은 ‘할 일’을 해 놓고 누려야 진짜 기쁨과 영광이다.” 하셨다.
2. <할 일도 안 해 놓고 누리는 영광>은 하루 밖에 나가 외식(外食)하고 오는 기쁨에 불과하다.
3. <할 일을 해 놓고 누리는 영광>은 <한 일>이 ‘영광’이 되어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.
4. 예수님도 ‘할 일’을 다 하고 ‘십자가’까지 다 지고, <영광>으로 부활하셨다. 그로 인해 2000년 신약역사 기간 동안 누리고, 영원히 누리게 되었다.
5. 모두 ‘할 일’을 하고, 그로 인해 ‘영광’을 누려야 된다.
6. <할 일을 안 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>는 빛을 내서 잔치하는 자와 같다.
7. <할 일을 하고 영광을 누리는 자>는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기뻐하며 잔치하는 자와 같다.
8. 모두 휴거되었고, 주와 함께 십자가 기간을 거쳐 부활됐으니 그로 인해 ‘기쁨과 영광’을 누려야 된다. <영>으로도 그 영광을 못다 누리니, <육>으로도 평

생 누려야 한다.

9. <주와 함께 생명을 구원한 자들>도 <영>으로도 ‘영광의 면류관’을 받아 영원히 누리고, <육>으로도 ‘그로 인한 영광’을 누리게 된다.
10. <섭리사>는 ‘할 일을 하는 과정 중’에도 영광을 누렸고, ‘할 일을 다 하고 나서’도 그로 인해 영광을 누린다.
11. <주>가 ‘시대의 할 일’을 다 하고 ‘십자가’를 다 지고, ‘영광’으로 돌아왔으니, 다 이루었다. 이는 ‘시대 죄의 빚을 다 갚았다. 희망을 이루었다.’ 함이다. 비유로 하면 ‘공사를 다 했다.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.’ 함이다.
12. <주>는 ‘머리’이고, <따르는 신부들>은 ‘지체’다. 고로 <주>가 신부들과 같이 ‘영광’으로 돌아왔다.
13. <주>는 ‘큰일’을 하고, <신부들>은 ‘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들’을 했다. 그것이 ‘큰일’인지 ‘작은 일’인지 따지기보다, <각자 할 일을 한 것>이 크다.
14. <자기 신앙을 지킨 것>도 ‘할 일을 한 것’이다. 고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고 나면, 그 일로 인해 ‘기쁨과 영광’을 누리게 된다.
15. <휴거>도 할 일을 하고서 이루었으니, 그로 인해 ‘휴거의 기쁨과 영광’을 누리는 것이다.
16. 모두 ‘할 일’을 했으니, 주와 함께 <부활의 기쁨과 영광>을 누리고 <증거>하면서, 주와 함께 <부활의 때>에 맞게 행하여라.
17. 올해는 ‘섭리역사 40년이 되는 해’인데, 그동안 ‘섭리사의 일’을 하고 ‘시대 십자가’까지 졌다. <시대 십자가>는 ‘안’에서도 졌고 ‘밖’에서도 졌다. 이제는 ‘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얻을 때’다.
18. <죽었다 살아나는 것>이 얼마나 기적이나. 40년, 혹은 400년, 혹은 4000년

만에 민족과 세계가 사망권에서 해방되어 ‘영광’ 으로 나왔다. <한국>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침략한 후 40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어 <부활의 영광>으로 나왔다. <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>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<부활의 영광>으로 나왔다. <개신 기독교는 루터의 조건 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 <부활의 영광>으로 나왔다. <일본 섭리역사>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교사 추방령을 내려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후 400년이 끝나는 해에 ‘섭리 복음’ 이 침노해 들어갔다. <평화>로 들어갔다.

19. <구약역사> 4000년의 고통과 형벌의 기간이 끝나고, 하나님은 ‘메시아’ 를 보내셨다. 그로 인해 ‘시대 새 역사, 신약의 영광’ 으로 나왔다.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‘시대’ 에 맞춰 행하셨다.
20. <섭리역사 시대 고난과 환난의 십자가 기간>은 ‘10년’ 이었다.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대로다.
21. 주가 십자가를 지고 ‘부활’ 되어 나오면, <따르는 자들>뿐 아니라 <그 시대>가 모두 ‘영광’ 으로 나오게 된다. - 이것을 두고 ‘죽은 자들이 부활되었다.’ 한다.
22. 주가 시대 십자가를 질 때 <사망>이 생명들을 삼켰다가, 부활되어 나오면 <사망>이 ‘삼킨 자들’ 을 내놓게 된다. 고로 많은 자들이 부활된다.
23. <모세 때>도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듯 했다. 그 속에서 역사를 펴다가, 때가 되니 이집트에서 나왔다. 나오니, 더 이상은 ‘구속’ 을 받지 않았다.
24. <모세>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파라오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, 하나님은 ‘열 가지 재앙’ 으로 이집트를 치셨다. 그러다 결국 ‘생명’ 을 치니,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놨다. 마치 삼킨 자가 자기 애인을 끌고 가서 안 놓으니 결국 ‘손목’ 을 끊으니 내놓고, 그래도 안 놓으니 ‘목’ 을 끊으니 내놓는 격이다.
25. 하나님도 이 시대에 그렇게 행하셨다. <여우>가 자기 가축을 잡아가서 물고

안 놓으니, 주인이 작두로 ‘여우의 목’ 을 자르니 내놓았다. <늑대>는 안 내놓고 물고 도망가니, 주인이 개를 보내어 개가 ‘늑대의 목’ 을 물고 뜯으니 그제야 내놓았다. <개미>가 살을 물고 안 놓으니, ‘개미의 목’ 을 자르며 개미 자신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게 했다.

26. 이 시대도 <삼킨 자들>이 ‘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’ 을 안 놓으니,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며 그들 자신의 눈으로 그 모습을 보게 하셨다. <고난을 당한 자들>도 모두 보았다.

27. <시대 십자가 기간 10년> 동안, 의인들에게 고난을 준 시대도, 개인도 모두 ‘사망’ 으로 갔다.

28. <사탄>은 ‘하나님의 백성들’ 을 물고 고통을 주면서 놔주지 않았다. 이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주와 함께 ‘그들이 목’ 을 잘라 <사망, 지옥>으로 보냈다.

29. 집에 들어온 뱀을 잡고, 적을 잡고, 악행자들을 잡고, 고생돼도 생명길로 가면 서 할 일을 다 하고, <영광의 잔치>를 하는 것이다.

30. <주>가 십자가를 지면서 할 일을 다 하고, 사탄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. 이제 1000년 동안 ‘혼인 잔치 역사’ 다.

31. <사탄>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뜨거운 썩물을 먹으면서, 1차 고통을 받고, 세상에서 사탄이 쓰던 자들도 같이 지옥 고통을 받는다. 더러는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자도 있다.

32. <사탄과 악>을 없애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‘황금성 천국’ 을 이룰 수 없다. <시대>도 그러하고, <민족>도 그러하고, <개인>도 그러하다.

33. 자기부터 ‘사탄과 악’ 을 없애고 사는 자는 <땅>에서도 ‘천국’ 을 이룬다.

34. <육>을 통해 <영>도 ‘휴거’ 로 ‘천국’ 을 이룬다.

35. <시대의 밤>이 가고 <낮>이 왔다. 사탄을 옥에 가두고 부활됐으니, ‘시대 할

일’을 하면 된다.

36. 각 개인도 <사망의 주관권에서 부활된 몸>이 되어 행해야 된다. <과거에 못한 것>을 해야 된다. <부활의 때, 영광의 때>를 놓치면 안 된다.
37. <농사>도 지을 때 짜증내면서 지으면 기쁨도 없고,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, 가을이 와서 거두는데도 짜증이 나고, 영광의 때에 먹고 사는데도 짜증이 난다. 섭리사 <부활과 영광의 때>도 그러하다. 이때, 삼위께 <감사와 기쁨과 영광>을 화끈하게 돌려야 한다.
38. 올해는 <희망과 감사의 해>이며 <부활과 영광의 해>이다. 들어가도 ‘복’, 나와도 ‘복’이다. - 이것이 ‘올해의 꿈’이다.
39. <부활과 영광의 때>에 ‘할 일’을 한 자는 더욱 ‘영광’에 들어가게 된다. 모두 <자기 할 일>을 ‘감사와 기쁨’으로 하여라. 억지로 짜내면서 짜증내며 하지 말고,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사랑해서 해야 된다.
40. <감옥에 간 자들>을 보면, 크게 ‘두 가지 유형’이 있다. 이전 것을 잊고 자기 수양을 한다 생각하고 사는 자가 있고, 너무 괴로워하며 이렇게 사느니 죽자 하면서 죽으려 하는 자도 있고, 실제로 목을 매고 죽는 자도 있다.
41. 이제 <하나님의 부활의 시대>가 왔으니 서로 다투며 심정 상하게 하지 말고, 기뻐하며 살아라. 그러지 않으면, 감옥에 간 중죄수만큼도 희망과 영광을 못 누리고 살게 된다.
42. <자기>가 ‘자기’를 묶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삼위를 사랑하면서, 지구를 창조해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주시어 행하게 하신 삼위께 영광 돌리며 자기 할 일을 하면서 ‘기쁨과 영광’을 누리며 살아라.
43. <복>은 ‘자체’에서도 솟는다. 그러니 <자기 복의 구멍>을 자기 스스로 메우지 말아라.
44. 주를 중심하고 자기가 <생각>을 ‘기쁜 쪽, 희망의 쪽’으로 해야 된다. <기쁨과 희망의 넓은 쪽>을 두고, 왜 ‘반대쪽 좁은 구멍’으로 들어가서 생각하

느냐.

45. 온 천지가 ‘하나님이 주신 복의 길’이며, ‘기쁨과 희망의 길’이다. 왜? <주로 말미암은 길>이기 때문이다.
46. <주>를 따라가면, ‘매일 복’이다.
47. <악>은 결국 분리되고 분해되어 처리된다. <짜증, 걱정, 근심, 불안>도 다 자동으로 처리된다.
48. 선생은 비바람 치면 목욕하고 때 밀고, 눈보라 치면 스키 타고, 썰매 타고, 파도치면 파도 타고 고기 잡고 인어도 잡으면서 지냈다. <주를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자>라면, 모두 그리하여라.
49. 사람은 <기분>에 죽고 산다. <기분>에 날고 긴다.
50. 짜증을 내면, 더 ‘기쁨’도 사라지도 ‘힘’도 사라진다.
51. <자기 기분>은 ‘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조절’할 수 있는데, 왜 기분 나쁘게 조절하느냐.
52. 선생이 악한 자들의 손에 잡혀 끌려갈 때, 성자는 “나, 네 옆에 있다.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하자. 결국 형벌로 들어간다.” 하셨다. <시대 환난과 고난의 기간>도 처음 겪을 때는 두렵고 무서웠지만, 다 끝나면 오히려 ‘파도 타기’를 하게 된다. 예전에는 ‘죽이는 핍박과 고통’이었지만, 지금은 예전과는 다르지 않느냐.
53. 선생에게 ‘시대가 준 고통’이 수천 가지였지만, 다 기록하지 않았다. 10년 동안 <기쁜 쪽, 희망의 쪽>을 더욱 생각하면서, <영광의 세계의 글과 계시>만 썼다.
54. <죄를 지은 자들>은 다 고해야 된다. 죄를 숨기면, ‘자기 책임’이니 그냥 봐줄 수밖에 없다.

55. <영광의 때>가 왔으니, 다 풀어 놓는다. <죄인을 풀어 주는 기쁨>도 ‘주의 기쁨’ 이다.
56. 하나님께 바로 고하면 그 음성이 안 들리니, 용서받았는지 확신이 없다. 고로 하나님은 ‘그 육신’ 을 통해 하나님께 고하게 하시고, 직접 ‘귀’ 로 들리게 ‘그’ 를 통해 용서하신다. 그리고 “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. 회개했으니 영광의 일을 주마. 나와 같이 생명을 구하여 영의 면류관을 쓰자.” 한다.
57. 깨끗하게 단장하고, 자기 할 일을 하며, 생명을 구해야 <영의 면류관>을 쓰게 된다.
58. 아무 공적이 없으면, ‘머리를 뺨뺨 민 민머리’ 와 같다. 전도할수록, <면류관>이 화려해진다.
59. <부활>은 ‘죽은 자’ 에게 해당된다. <주>가 십자가를 짐으로 <시대 신부들>도 모두 십자가를 졌다. 고로 살아 있었지만, ‘사망이 삼킨 바’ 되어 살았다. 이제 주가 십자가를 지고 다 이기고 나왔다. 1000년 동안 사탄을 옥에 가두었다. 이로써 <의인들을 괴롭힌 자들>은 ‘두려움과 고통’ 으로 들어가고, <의인들>은 ‘부활과 영광과 기쁨’ 으로 나온다. <하나님의 말씀>을 중심하여 자기가 행한 대로 <부활과 영광>으로 나온다.